

천도교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고찰

노 태 구

(경기대학교)

《요약》

천도교의 사회적 기능을 두고 먼저 다종교사회의 천도교의 이념적 근거를 人乃天, 後天開闢思想, 同歸一體思想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종교형태로서의 천도교를 두고 의례와 그 기본정신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종교집회를 두고 정기집회와 비정기 집회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먼저 교육사업을 들 수 있다. 이를 일반교육과 청소년 교육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사회활동의 전개를 두고 복지사업을 교류사업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종교사회의 사회적 기능을 두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천도교는 다양한 역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먼저 후천개벽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종교인의 참모습을 깨닫고 몸소 실천해야 한다.

둘째 동학혁명, 3·1운동에서와 같이 고단적 차원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전개이다.

셋째 천도교의 이념에 맞는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교인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히 천도교는 민족종교로서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루어내는 일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오늘과 같은 현대사회는 종교는 다기능적 측면을 갖고 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진지하고 심오하고 경건하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회적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불합리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이기적이며 때로는

폭력적인 역기능이 존재하기도 한다.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기능과 가치 문제 또한 간단하게 단선적으로 그 정답을 판단할 수 없다.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끝없는 窮究를 위해 통찰과 지혜를 일으켜 왔다. 인류에게 종교는 정신적인 면이든 물질적인 면이든 문화유산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겼다.

오늘날 산업화에 의해 새로이 부를 축적한 신중간층의 종교적 귀의는 기복 종교적 속성의 단면을 보여주었다면 소외계층의 종교적 지향은 내세적인 광신주의적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 대 후반에 와서 폭발적인 다종교 현상으로 나타나고 종교의 극단적인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종교의 속물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세속화적인 과정은 종교의 경제화 현상을 가져왔다. 이는 신자의 급증에 따라 경제단체와 같이 비대화 되었고 또한 이러한 속성은 곧 기업경영적 속성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더욱이 종교의 교조화 현상은 특정 교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으로 서로 다른 종교를 질시하거나 배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종교 자체가 사회 결속을 위한 장치로써 기능하기 보다는 분열의 역기능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¹⁾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는 확연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최근에는 종교가 사회적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그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산업화 및 현대화라는 급진적 사회변동이 우리 사회에 물질적이거나 정신적 측면에서의 갈등과 소외를 야기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종교의 기능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갈등과 소외를 통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사회병리현상의 치유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가 종교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다른 물질적인 갈등을 가속시키고 정신적인 소외를 심화시킨다면 사회통합보다는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갈등과 소외를 심화시켜주는 역기능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 나라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극심한 사회변동을 겪

1) 「현대한국종교변동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58-60면

고 있으며 각 종교는 이에 대하여 나름대로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일반의 기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종교는 의례와 교육 사회활동 등을 통하여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도 중요한 정치·사회적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천도교의 사회관, 세계관의 이념적 근거와 종교적 의례, 교육 및 사회활동, 그리고 사회적 기능,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II. 천도교 세계관의 이념적 근거

오늘날 사회관의 이념은 사회의 전구성원이 생활양식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역할이나 총체적 이데올로기로서 실천적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천도교의 세계관의 근거는 人乃天, 後天開闢, 同歸一體사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내천은 평등과 자유를 내포하는 현대 국가에서 정치이념의 상이성을, 후천개벽은 사회변혁적인 측면에서 동귀일체는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정치·사회관을 설명할 수 있다.

1. 인내천

인내천은 천도교의 종지이다. 사람마다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侍天主의 신앙과 사람을 한울같이 섬기라는 事人如天의 윤리와 더불어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평등의 이념을 보이는 인간 중심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 중심의 사회 건설은 모든 사람이 계층 신분에 상관없이 神을 내면화한 것으로 사람의 존엄성을 극대화한 지상천국 건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운 최제우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킨 해월 최시형은 “사람은 한울이라 평등이요, 차별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귀천을 나누어 대함은 天意에 어긋나는 것이니 도인은 일체 귀천의 차별을 철폐하여 先師의 뜻을 계승하라”²⁾고 하였다.

2)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4호, 1980. 1, 75면

또한 수운 최제우는 종래의 남존여비의 종속적인 가족관계에서 탈피하여 남녀평등을 몸소 실천하였으며 나아가 세습의 두 여비를 해방하여 한 사람은 며느리로, 한 사람은 수양딸로 삼았다.³⁾ 이러한 남녀평등이나 인간존중사상은 신인일체의 근원적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는 주체라는 인내천은 사람을 한울같이 섬기자는 事人如天의 윤리·도덕적인 신앙상의 가르침으로만 그치지 아니 하고 민중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여 주체적인 자각을 불러일으켜 민중 스스로가 역사 추진의 주역이 되게 하는 새로운 사회현실 타개의 선구적 지도이념을 보여주게 된다.

2. 후천개벽사상

開闢이란 암흑과 혼돈에서 천지가 처음 생긴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 개벽사상은 인문개벽을 의미한다. 수운 최제우는 역사를 크게 두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지나간 세상은 先天이고 다가올 미래의 새세상을 後天이라 하였다. 낡은 선천의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후천의 새 세상이 열린다는 뜻으로 후천개벽을 내세운 것이다. 따라서 후천개벽은 천지개벽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문화개벽을 뜻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 문화 전반의 일대 변혁과 새로운 사회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후천개벽의 사회관은 역사의 순환에 따른 천운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⁴⁾ 후천개벽의 새로운 사회 창조는 한울님 마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으로 이는 신인간 창조운동인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의 3대개벽을 전개한 바 있다. 이중 특히 사회개벽은 작게는 사회, 넓게는 전인류의 사회적 질병인 제도상의 모순을 극복, 즉 인간의 계급과 차별을 없애고(새로운 윤리도덕), 경제적 기회균등(새로운 경제제도), 정치적 기회균등(새로운 정치제도)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3) 「천도교백년약사(상)」, 천도교중앙총부, 1981, 82면

4) 오익제, 「천도교요의」, 천도교중앙총부, 1987, 146면

3. 동귀일체 사상

동귀일체는 天人合一, 個全一體의 원리에서 비롯되었다. 인간 사회는 모든 개인의 집결체이며 협동체이며 조직체이다. 따라서 개인은 부분적 존재이며 사회는 전체적 존재로써 부분적인 개인을 무시하고는 사회의 발전을 기할 수 없고 전체인 사회를 떠나서 개인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개성의 자유로 편중되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으며 개인도 사회적 존재라 하여 전체적 사회화에만 편중되는 전체주의가 없지 않다. 여기서 개인주의는 자유와 창의, 능률을 기하는데 장점이 있으나 전체의 평등 즉 형평을 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전체주의는 전체의 평등을 기하는데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 능률을 저해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귀일체의 원리는 개인화와 전체화의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동귀일체는 대립과 분열의 부조화를 조화시킬 수 있고 자유와 평등의 편중을 雙全할 수 있으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에 있어 인간중심의 원리로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 또한 동귀일체는 참된 진리가 오직 하나요 나와 한울이 둘이 아니요 하나임을 깨닫고, 참된 하나의 진리로 돌아가 온 겨레와 온 인류가 하나로 귀일함을 뜻한다. 그것은 나와 가족이 하나임과 같이 나와 이웃과 겨레와 인류가 하나가 됨을 말한다. 여러 갈래의 다양한 가운데 조화와 일치점을 찾고 모든 모순과 갈등을 지양하는 통일의 새로운 창조를 뜻한다. 지난날 불행하였던 투쟁과 분열의 역사에서 벗어나 평화와 협동과 화합의 길로 나아감을 말한다.⁵⁾

III. 천도교의 종교적 의례

1. 의례의 기본정신

일반적으로 종교적 의례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다. 흔히 신

5) 상계서, 153-156면

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정형화된 행위를 모두 종교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도, 수행, 포교, 사회봉사 등 종교체험의 외적인 표현인 종교행위가 점차 정형화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종교의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교의례는 사회문화, 종교단체, 그리고 개인에게도 다양한 의미를 주고 있다. 사회문화 차원에서는 사회가치나 집단을 인간과 초자연, 성스러운 것과 연결함으로써 사회의 가치 또는 계층의 존재 등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종교단체의 차원에서는 종교의 정당화 기능과 구성원을 결속시키는 기능을,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삶의 충격에 대한 유화적 기능을 제공한다.⁶⁾ 천도교에서 의례에 대해서는 수운 최제우보다 해월 최시형이 보다 많이 언급하고 있다. 최시형은 제자들과 向我設位에 대한 문답을 통해 의례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사 물으시기를 “제사 지낼 때에 벽을 향하여 위를 배푸는 것이 옳으나 나를 위하여 위를 배푸는 것이 옳으나”

손병희 대답하기를 “나를 위하여 위를 배푸는 것이 옳습니다.”

신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니라. 이제부터 나를 향하여 위를 배푸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제물을 차릴 때에 혹 급하게 집어먹었다면 다시 차려서 지내는 것이 옳겠느냐 그대로 지내도 옳겠느냐”

손천민 대답하기를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중략)-

임규호 문기를 “나를 향하여 위를 배푸는 이치는 어떤 연고입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나의 부모는 첫 조상으로부터 몇 만대에 이르도록 혈기를 계승하여 나에게 이른 것이요, 또 부모의 심령은 한울님으로부터 몇 만대에 이어 나에게 이른 것이니 부모가 죽은 뒤에도 혈기는 나에게 남는 것이요, 심령과 정신도 나에게 남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사를 받들고 위를 배푸는 것은 그 자손을 위하는 것이 본위이니 평상시에 식사를 하듯이 위를 배푸는 뒤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심고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교훈과 남기신 사업의 뜻을 생각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옳으니라.’

6) 「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문화체육부, 33-39면 참조

방시학이 묻기를 “제사 지낼 때에 절하는 예는 어떻게 합니까”신사 대답하시기를 “마음으로써 절하는 것이 옳으니라” 또 묻기를 “제물차리는 것과 상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 만가지를 차리어 벌려 놓는 것이 정성이 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청수 한 그릇이라도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옳으니라. 제물을 차릴 때에 값이 비싸고 싼 것을 말하지 말고 물품이 많고 적은 것을 말하지 말라. 제사 지낼 시기에 이르러 흥한 빛을 보지 말고 음란한 소리를 듣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서로 다투고 물건 빼앗기를 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옳으니라. 굴건과 제복이 필요치 않고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더라도 지극한 정성이 옳으니라.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굴건을 쓰고 제복을 입고라도 그 부모의 뜻을 잊어버리고 주색과 잡기판에 나들면 어찌 가히 정성을 다했다고 말하겠는가.”

조재벽이 묻기를 “ 상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마음으로 백년상이 옳으니라. 천지부모를 위하는 식고가 마음의 백년상이니,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부모의 생각을 잊지 않는 것이 영세불망이요 천지부모 네 글자를 지키는 것이 만고사적으로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이니라”⁷⁾

이 향아설위의 법설을 기초로 한 천도교 의례의 기본정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첫째, 천도교 의절의 기본정신은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와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인내천’ 원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事人如天, 開闢, 同歸一體, 三敬說, 待人接物, 向我設位, 性靈出世說 등 스승님 법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제례식 등 모든 의식은 허례허식을 지양하여 간소화하면서도 엄숙하게 집행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둘째, 천도교인은 평소 수도생활을 하며 수도의 중요한 요체로 守心定氣, 誠敬信, 以身換性등을 들고있다. 수운 최제우는 “仁義禮智先聖之所教 守心正氣惟我之更

7) 「천도교경전」, 천도교중앙총부, 1994, 344-352면

8) 「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315-317면

定(인의예지는 먼저 성인의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니라)” 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으로 주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오로지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수심정기의 수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사람들이 좋은 말은 많이 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세상의 날로 혼탁해지는 근본원인은 수심정기를 못하기 때문이다.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모두 수심정기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천도교인들은 한울님의 덕과 스승님의 은혜를 염념불망하는 수련을 통해서 수심정기의 도를 닦고 예절을 지킨다.

셋째, 천도교는 성경신을 실천도덕의 덕목으로 삼는다. ‘정성’은 순일하고 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성실성, 적극성, 근면, 根氣 이러한 마음 가짐과 생활태도를 말한다. ‘공경’은 마음을 경건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함으로써 한울을 공경하고 사람을 한울같이 공경하며 물건을 공경함을 말한다. ‘믿음’은 한울님에 대한 믿음, 확고 부동한 신념, 대인관계에서의 두터운 신의를 말한다. 천도교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접함에 오로지 성경신을 체행하는 것을 기본 준칙으로 삼는다.

넷째, 의암 손병희는 ‘이신환성’은 수운 최제우의 本旨라고 하였다. ‘이신환성’이란 육신은 사람의 한때의 객체요 성령이 영원한 주체임을 알고 육신을 성령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다. 육신을 주체로 하던 생각과 생활 태도를 버리고 성령을 주체로 한 생각과 생활자세를 취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천도교인은 모두 이신환성으로 정신을 개벽하여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다. 정신을 개벽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一體의 원리를 깨달아 화합할 수 있고 창생을 건지고 새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경전에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부모는 일체이니라.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니라. 님이라는 것은 존칭하여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다. 천도교인들은 항상 부모님께 지극히 효성하고 천지를 부모님 같이 섬기는 도를 실천하여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자 노력한다. 여기에 도덕성회복과 자연환경 보전의 태도가 있다고 본다.

여섯째, ‘사인여천’이란 사람이 곧 한울이니 사람은 한울님같이 섬기자는 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운 최제우는 가정에서 여자 중 두 사람을 해방하여 딸과 며느리로 삼았고 해월 최시형은 교인 집에서 며느리가 베짜는 것을 ‘한울님이 베를 짰다’고 했다. 또한 ‘집에 손님이 오거든 한울님이 강림하셨다 말하라’고 하였다.

천도교인들은 항상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진리를 실천하고자 어린이에게도 경어를 쓰며 사람을 대하면 노소를 가리지 않고 서로 큰절을 하면 인사를 한다. 부부 간에도 절을 한다. 그래서 “절 잘하는 천도교”라는 말이 있다.

일곱째, 해월 최시형은 “부화부순은 우리 도의 제일 중지”라 하시고 “부부가 화순하지 못하면 도를 이룰 수 없다”고 설법하였다. 특히 포덕 30년에 ‘내수도문’과 ‘내칙’을 반포하여 부인수도와 태아교육의 길을 밝혀 주었다.

2. 천도교의 의례⁹⁾

천도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의례는 기본적으로 입교식, 심고법, 오관, 기념식, 탄신 및 환원기도식, 사은기도식, 위령식과 사회 통과 의례인 혼례, 상례, 제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교식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며 믿음의 근본은 마음이다. 그 믿음의 근본인 마음을 새로이 하고 굳게 다지며 모시고 있는 한울님에게 경건하게 서약하고 심고를 올리는 의식이 곧 입교식이다. 입교식은 종교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하느나 하지 않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입교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입교식을 해야 한다.

입교식을 하기 전에 受敎人은 목욕 제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입교식은 집례자에 의해 傳敎人과 수교인, 그리고 參禮人이 모인 가운데 행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9) 「천도교의절」, 천도교중앙총부

- ① 淸水奉奠
- ② 心告
- ③ 주문3회병송(참례자 일동으로)
- ④ 誓天文 낭독(수교인)
- ⑤ 3.7자 주문 전수(전교인이 수교인에게)
- ⑥ 淸水分酌
- ⑦ 上向拜禮
- ⑧ 심고

한편 천도교를 신앙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앙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복교하려는 사람은 복교식을 해야 한다. 복교식의 절차는 입교식에 준하되 복교인이 懺悔文을 봉독한다.

2) 기념식

천도교의 기념식으로는 교조 수운 최제우의 득도일을 기념하는 천일기념식을 비롯하여 지일기념식, 인일기념식, 도일기념식, 현도기념식, 3.1절 기념식, 동학혁명기념식 등으로 7대 기념식이 있다.

天日紀念式은 천도교 제1세 교조 수운 최제우가 1860년 4월 5일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득도한 날, 즉 천도교의 唱導日로 매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과 각종 행사를 갖고 있다. 地日紀念式은 1863년 8월 14일에 천도교 제2세 교조 해월 최시형이 수운 최제우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人日紀念式은 1897년 12월 24일에 천도교 제3세 교조 의암 손병희가 해월 최시형으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道日紀念式은 1908년 1월 18일에 제4세 춘암 박인호가 의암 손병희로부터 대도주의 종통을 전수받은 날을 기념하여 위하여 갖고 있다.

그외에 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로 顯道하여 널리 세상에 선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顯道紀念式,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한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3.1절 기념식, 1894년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로 기포한 동학학형을 기념하기 위한 동학혁명기념식 등이 있다.

3) 탄신 및 환원기도식

이상의 기념식 외에 스승님의 탄신을 경축하고 또 還元을 추모하는 기도식을 전체 교인이 각자의 집에서 행하는 데 그 날짜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신사탄신일 : 10월 28일(1834년)
- ② 해월신사탄신일 : 3월 21일(1837년)
- ③ 의암성사탄신일 : 4월 8일(1861년)
- ④ 춘암상사탄신일 : 2월 1일(1855년)
- ⑤ 대신사순도일 : 3월 10일(1864년)
- ⑥ 해월신사순도일 : 6월 2일(1897년)
- ⑦ 의암성사순도일 : 5월 19일(1922년)
- ⑧ 춘암상사순도일 : 4월 3일(1940년)

4) 謝恩祈禱

사은기도는 感謝祈禱와 奉告祈禱의 두 가지가 있다. 사은기도는 出生, 入學, 就職, 昇進, 褒賞, 道帖등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가족 또는 교우가 모여서 감사의 기도를 행하는 것이며 그 절차는 청수봉전, 심고, 주문3회병송, 천덕송합창, 심고순으로 진행한다.

봉고기도는 교회적으로 커다란 경사와 기쁜 일이 있을 때 한울님과 신성사님 전에 그 사실을 봉고하는 의식으로 奉告式이라 일컬으며 주로 교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많은 교직자와 교인들이 참례하여 거행한다. 봉고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청수봉전
- ② 심고
- ③ 주문3회병송
- ④ 奉告文 낭독
- ⑤ 천덕송 합창
- ⑥ 심고

5) 위령식

위령식은 수운 최제우, 해월 최시형 등을 위시한 교회의 역사과정에서 순교 순국한 선열들의 영령을 합동으로 제사하는 의식으로 매년 3월 10일에 정중하게 거행한다. 3월 10일은 대신사가 순도한 날로서 이 날을 표준으로 합동으로 교회를 위하여 순교한 영령들을 위로하고 추모한다. 위령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청수봉전
- ② 분향
- ③ 개식사
- ④ 심고(집례자 발성)
- ⑤ 주문3회병송
- ⑥ 경전봉독(성령출세설)
- ⑦ 위령문 낭독
- ⑧ 추념사
- ⑨ 위령송합창
- ⑩ 심고

6) 통과의례

통과의례로는 혼례, 상례, 제례가 있다. 혼례는 약혼 및 결혼의 의식을 말하는 것이며, 상례는 收屍, 입관, 영결, 하관 등 네 가지의 절차를 말한다. 제례는 환원한 후 1주년이 되는 날 추모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의례마다 간략한 절차로 거행한다. 천도교 의례의 특징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百年心喪의 정신에 따라 마음속으로 뜻을 기리도록 하고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혼례

혼례는 기쁨과 행복 속에 그리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천도교는 현실에 맞는 실질적이며 모범적인 혼례의식 절차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혼례 의식으로는 약혼식과 결혼식이 있는데, 호화롭고 사치스러우며 복잡하고 낭비적인 요식들을 과감히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간소화된 준칙을 만들어 행하

고 있다.

① 청수봉전 ② 신랑 신부 입장 ③ 신랑 신부 상견례 ④ 고천문 낭독 ⑤ 신랑 신부 청수분작 및 심고 ⑥ 신랑 신부 예물교환 ⑦ 주례사 ⑧ 축복 기원 심고 (참례원 일동) ⑨ 신랑 신부 내빈에 대한 경례 ⑩ 양가 대표 인사 ⑪ 신랑 신부 퇴장 ⑫ 폐식 특히 천도교의 결혼식 의 특징의 하나는 신랑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며 그 뒤에 양가부모(또는 친척이나 친지부모)가 후행하여 예탁 앞에서 안내한다.

(2) 상례

천도교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사망이라 하지 않고 還元이라고 한다. 사람이 환원하면 영혼이 먼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과 후학 친지들 심령 속에 또는 우주심법과 융합되어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살아간다고 보며, 상장례와 제례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행한다. 천도교에서는 侍天主정신에 따라 새로운 상례절차를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새 생활 운동의 규범으로 삼고 있다. 우선 검은 완장과 검은 동정을 단 상복을 입고 제물은 清水 한 그릇으로 하며, 될수록 형식적인 호곡을 하지 않고 고인의 유덕을 추모하면서 마음으로 슬퍼하며 엄숙하게 식을 진행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還元祈禱

환원 즉시 고인의 시신을 수습 정돈한 후에 적당한 위치에 안치하고 병품이나 회장으로 시신을 가린다. 그리고 그 앞에 예탁을 차린다. 예탁 위에는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청수를 봉전하며 촛대와 향로를 놓는다. 환원 기도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심고 ② 주문 3회 병송 ③ 분향 ④ 심고 ⑤ 폐식

이상의 간단한 절차로써 경건하게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고 상주와 가족은 검은 옷으로 갈아 입는다.

나. 弔問

조객은 예탁 앞에 나아가 부의 봉투를 예탁 위에 놓고 분향, 심고, 경례한 후 상주를 향해 배례하여 조의를 표한다.

다. 入棺式

환원 후 24시간이 지나면 입관 절차를 가진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시신을 殮襲하고 입관한다.

② 병풍이나 휘장으로 관을 가린다.

③ 예탁 위에는 고인의 사진을 봉안하고 청수를 봉전하며 향로를 놓는다. 병풍을 세우고 銘旌을 건다.

④ 상주는 상복을 입는다.(남상주는 흰 두루마기에 검은 동정을, 여상주는 흰치마 저고리에 검은 동정을 단다. 양복일 경우는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 검은 완장을 단다. 상복은 장례 후 3일만에 가는 첫 성묘 때까지 입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 속으로 경건하게 고인을 추모한다.)

라. 永訣式

이 세상에서 고인과 영원히 이별을 하는 의식으로 교회장, 총부장, 교구장, 가족장 네 가지를 분류하여 진행한다. 영결식은 자택이나 교당 또는 특정 장소에서 행하며, 靈柩가 영결식 장소로 운구되면 먼저 영구를 모시고 병풍이나 휘장으로 가린 다음 그 앞에 예탁을 차린다. 예탁 설치하는 입관식 때와 같다.

영결식 식순의 식순은 다음과 같다.

① 청수봉전 ② 심고 ③ 주문 3회 병송 ④ 약력 소개 ⑤ 위령문 낭독 ⑥ 조사 ⑦ 위령송 합창 ⑧ 분향 ⑨ 인사 ⑩ 심고 ⑪ 폐식

마. 下棺式 묘지에 하관하고 흙을 덮기 전에 그 앞에 예탁을 설치하고 경건하게 하관식을 거행한다. 화장일 때는 화장장 분구 앞에 영구를 안치하고 거행한다. 하관식 식순은 다음과 같다.

① 청수봉전 ② 심고 ③ 주문 3회 병송 ④ 경전봉독(성령출세설) ⑤ 분향(상주, 교회대표) ⑥ 일동 경례 ⑦ 심고 ⑧ 폐식

바. 사진 봉안식

장례식이 끝나면 가족과 참례원은 고인의 사진을 봉안하고 귀가하여 사진봉안, 청수봉전, 심고, 주문3회 병송, 분향, 심고의 순으로 사진 봉안식을 거행한다.

사. 脫喪

상기는 장례 후 3일로 한다. 제복식은 장례 후 3일 성묘 때 또는 3일날 저녁 9시에 청수봉전, 심고, 주문 3회 병송, 경전봉독(성령출세설), 제복(검은 동정 소각), 심고의 순으로 거행한다.

(4) 제례

제례는 매년 환원한 날 오후 9시에 가족과 친척이 모여서 고인을 추모하는 제사를 드린다. 집안 정결한 장소에 예탁을 마련하고 고인의 사진을 봉안하고 청수를 봉전하고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제례식순의 식순은 다음과 같다.

① 청수봉전 ② 심고 ③ 주문3회 병송 ④ 추모사 ⑤ 분향(상주 및 참례원순) ⑥ 심고 ⑦ 폐식

3) 五款

이외에도 천도교인이라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한울님을 바르게 모시는 신앙의 수행조목으로 五款이 있는데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의 다섯 가지의 정성을 의미한다.

오관은 다섯가지 정성을 말한다. 스승님께서 한울님을 바르게 모시는 신앙의 수행조목으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참된 천도교인의 자격을 갖추려면 오관을 성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일정기간 이행치 않으면 교인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오관중 시일과 청수, 기도는 일종의 집회의 일종으로 종교집회에서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1) 呪文

주문은 한울님을 지극히 위하는 글이며 天人合一하게 하는 발원문으로서 한울님을 즐겁게 하고 한울님을 우러러 내 몸에 모시는 글이다. 교인이 무시로 誦呪함으로써 도성덕립이 되게 하는 法文인데 21자 주문, 13자 주문, 神師 주문 등 세 가지가 현재 사용되고 있다.

① 21자 주문: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英世不忘 萬事知” 이 21자 주문(3·7자 주문이라고도 함)은 보통 수련할 때와 특별 수련할 때에 默誦 또는 現誦으로 외우는 것이다.

② 13자 주문: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이 13자 주문은 입교식, 시일식, 기념식, 영결식 등 각종 의식을 거행할 때 3회 병송 또는 수련할 때 송주한

다.

③ 神師呪文 : “神師靈氣 我心定 無窮造化 今日至” 이 신사주문은 매 시일(일요일) 저녁 9시 기도 때 105회 묵송 또는 현송으로 한다.

(2) 誠米

성미는 천도교의 목적인 지상천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물질적 정성으로서, 교인의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저녁 밥쌀을 낼 때마다 가정주부가 식구별로 한 사람에 한 숟가락 생쌀로 떠서 일정한 誠米器에 모아두었다가 그 달 월말에 자기가 소속된 교구에 바친다. 성미를 뜰 때에는 식구별로 숟갈마다 심고를 드린다. 이 성미를 月誠이라고도 한다.

IV. 천도교의 종교 집회

천도교의 종교적 집회는 정기적인 집회로는 侍日이 기본이다. 그리고 오관 중 청수와 기도는 일정 시간에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의미의 정기집회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 비정기적으로 집회를 갖기도 하는데 중요한 행사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집회를 갖는다. 여기서는 청수, 시일, 기도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정기집회

1) 淸水

수운 최제우는 대구장대에서 참형을 당할 때에 청수를 봉전하고 순도하였다. 그러므로 교인된 자는(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일체 의식에 청수를 봉전하고 대신사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마음에 새기어 신앙심을 더욱 독실히 한다. 매일 밤 9시에 봉행하는 기도를 위시하여 시일식, 기념식, 경축식, 혼례, 상례, 제례 등 각종 의식의 禮卓에는 청수를 반드시 봉전하고 기도를 올린다.

천도교인의 가정에서는 매일 밤 9시에 청수를 봉전하고 기도한다. 이것을 매일 기도라고 하는데 절차는 매일 밤 9시에 온 가족이 도장을 정결히 하고 청수예탁을 중심으로 아래의 절차로 행한다.

매일기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청수봉전 ② 심고 ③ 주문 105회 묵송(21자) ④ 심고 ⑤ 폐식 기도식 후에는 청수를 분작하고 필요에 따라 경전봉독 또는 천덕송을 가족끼리 합창하기도 한다.

2) 侍日

천도교의 종교 집회는 시일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일은 오관 중의 하나이다. 시일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모든 교인이 다같이 교당에 모여 합동으로 기도를 드리며 경전을 봉독하고 설교를 듣고 천덕송을 봉창하면서 한울님과 스승님을 함께 모시는 공동체적 신앙집회이다.

천도교의 시일제도는 포덕 47년 6월 19일 종령 제29호에 의하여 이해 6월 22일 일요일에 첫 성화회를 시작한 것으로 그 효시로 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신앙집회가 있었지만 비정기적이었으며 필요에 의해 시행되었다. 당시 시일제도를 알리는 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人이 以天而聖이오 聖이 以教而化일새. 侍日에 設聖化會하야 設天人相與之理하되 部與區는 尊其樣式하야 盡首善之職하며 其居與部區相隔하야 赴會不便이어든 各自開中으로 定一閑靜之室하야 按例開會하며 一人二人이 不足以備其樣式이어든 各自其家로 率其家人 行侍日式하되 奉清水誦呪文하며 爲其家長者說解教理하야 使人人知侍天之意여다. 侍天이 在心이라 心이 天焉이면 人人可聖이니 念哉不怠여다. 唯我教人이여.¹⁰⁾

즉 시일식은 天人相與의 집단적 修練을 행하는 것으로 시일의 가장 중요한 특질은 이 천인상여와 집단적 수련에 있는 것으로 한울과 한울이 한울 안에 어우러져서 心和氣和의 無窮法力을 薰養하는 동시에 인간사회의 多方妙機를 驗得하는 表裏相須의 수련을 하는 것이다.¹¹⁾

10) 조기주, 「천도교종령집」, 천도교중앙총부, 1983, 32면

11) 소춘, 「시일과 시일학교」, 신인간 통권 7호, 1926. 11, 11면

천도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매주 일요일을 侍日이라 하며 이날 오전 11시에 인근 교당에 모여서 집단기도를 드린다. 집례자와 설교자 경전 봉독자가 예복을 착용하고 단상에 올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예식을 집행한다. 모든 의식에서 집행자는 반드시 예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한복일 경우에는 두루마기도 무방하다) 시일식의 식순은 다음과 같다.

① 청수봉전 ② 심고 ③ 주문3회 병송 ④ 경전봉독 ⑤ 천덕송 합창 ⑥ 설교 ⑦ 천덕송 합창 ⑧ 심고 ⑨ 폐식

3) 祈禱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으나 여기에 지칭한 기도는 시일날 행하는 기도를 말함인데 절차는 매일기도와 같이 시일날 밤 9시에 행하되 다만 정미 다섯 흠을 청수와 함께 예탁에 봉전하고 21자 주문 대신에 신사주문 105회를 현송 또는 묵송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예탁에 올렸던 정미는 따로 모아서 일년에 두 차례 상·하반기로 교회에 납부하는데 이것을 기도미 또는 年誠이라고 한다.

특별기도는 7일, 21일, 49일, 105일 등 기간을 정하고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도가 있다. 장소는 교당이나 수도원 또는 개인주택으로 정하고 특히 장소를 정결히 하여 행한다. 시간은 대체로 아침 5시와 밤 9시로 한다. 심고는 통상의 심고에 준하되 그 목적인 바를 위하여 적당히 수로 발원할 수 있다. 특별 기도 기간에는 술, 담배 또는 魚肉을 금하며, 주문을 외울 때는 염주(念珠-105주 또는 21주)를 손에 들고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청수봉전 ② 심고(목적한 바를 기원함) ③ 주문(1050독 또는 3150독을 목표로 묵송 또는 현성) ④ 경전봉독 ⑤ 심고

2. 비정기집회

중요한 행사나 특별한 경우에 집회를 부정기적으로 갖는 것을 말한다.

V. 천도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은 종교상의 지식, 의례 등에 관한 교양을 비롯하여 종교적 정서를 함양하고 종교적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천도교에서 추구하는 종교교육의 기본은 수도이라고 할 수 있다.

修道란 문자 그대로 도를 닦는다는 말이다. 도를 닦는다는 말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닦아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수도란 “온갖 지적인 미혹에서 벗어나고 情意로부터 일어나는 온갖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수양을 쌓은 단계”¹²⁾라고 할 수 있다. 수도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는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다. 우주 질서에는 진리가 있다. 그 진리를 탐구하는 노력을 수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수도는 마음을 닦는 일이다. 培根之達이라는 말이 있다. 나무는 뿌리를 북돋아야 무성하게 자란다는 말이다.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꾸준히 마음을 닦어야 한다는 말이다. 수운 최제우는 “心學이라 하였으니 不忘其意 하였으라, 현인 군자될 것이니 도성덕립 못 미칠까”, “仁義禮智는 옛 성인이 가르친 바요, 守心正氣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니라”¹³⁾ 라 하여 수도의 요체를 수심정기와 誠·敬·信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無體法經』에도 “도를 어느 곳에서 구할 것인가, 반드시 내 마음에서 구할 것이니 살필지어다”¹⁴⁾라는 표현이 있다.

셋째, 수도는 한울님 모심을 깨닫고 天人合一의 인격을 완성하는 일이다. 나에게 정신, 생명이 있듯이 우주에도 정신과 생명이 있다. 그 대우주를 부모와 같이 존칭해서 한울님이라고 한다. 이를 깨닫고 천인합일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수도라고 한다.

넷째, 나 자신(性·心·神)을 깨닫는 일이다. 이를 나무에 비유하면 성품은 뿌리요 줄기와 같고, 마음은 가지와 같고, 육신은 잎과 같다. 성품과 마음은 한 가지로 무형이지만 성품은 작용하기 전 상태요 마음은 작용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성품

12) 임운길, 「수도와 인생」, 천도교중앙총부, 1992, 15면

13) 「천도교경전」, 51면

14) 상계서, 437면

과 마음을 아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으로 터득해야 하며, 육신의 질병이다 없어지고 내 몸을 자유 자재로 할 수 있어야 성·심·신 三端을 다 깨달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¹⁵⁾ 특히 성품을 깨닫고 마음을 깨닫는 것을 見性覺心이라 하며 견성각심이 되어야 나의 무궁함을 알 수 있고 나의 본래 근본을 알게 된다. 무궁한 이 한울 속에 불생 불멸의 본래의 나를 깨달아 남과 내가 둘이 아니요,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요, 생사가 하나임을 알게 되며 그리하여 기쁨과 보람과 자유, 즉 자유·평등·박애를 찾게 될 것이다. 즉 성·심·신을 다 깨달아야 나를 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노력을 수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濟人疾病, 長生不死, 萬事如意的 힘을 기르는 일이다. 인간의 소원은 한 없이 많으나 이를 요약하면 ① 먼저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겠다는 것이요 ②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요 ③ 모든 일을 뜻과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인류는 先天 오만년 동안 이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수운이 無極大道의 가르침을 받아 이 뜻을 이루게 된 것이다.¹⁶⁾ 즉 수운 최제우의 가르침을 받아 侍天主의 진리를 알고 수련을 계속함으로써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장생할 수 있고 모든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만사 여의는 수도를 잘해서 한울님 마음을 찾고 정신을 통일하고 한울님 뜻대로 살면 만사가 뜻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수도는 誠·敬·信을 체행하는 일이다. 수운은 우리 도는 다만 성·경·신 석자에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다 갖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신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精誠은 순일하여 쉬지 않는 것을 말하며, 성실성, 적극성, 근면, 끈기 있는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를 말한다. 恭敬은 잠깐이라도 한울님 모양함을 늦추지 않고 자나깨나 내 마음을 두려워하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편안한 마음, 경건한 마음가짐과 또한 한울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물건을 공경하는 생활태도 등을 말한다. 信은 한울님 모심을 굳게 믿는 동시에 확고한 신념과 신용과 의리의 생활 자세를 말

15) 상계서, 439면

16) 임운길, 전계서, 21면

한다. 이와같이 정성과 공경, 믿음을 아울러 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수도라 한다. 義菴은 성·경·신법을 설법하였다.¹⁷⁾

일곱번째, 수도는 輔國安民, 布德天下, 廣濟倉生, 지상천국 건설의 대업을 성취하는 일이다. 도에는 入道과정, 修道과정, 行道과정이 있다고 한다. 어느 과정이나 다 중요하지만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특히 수도하는 사람은 항상 守心正氣의 수련과 정성, 공경, 믿음을 체행해 가는 과정에서 수도의 참된 면모를 찾을 수 있다.

1. 일반 교육

앞서 살펴보았듯이 천도교 종교교육은 수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신도 교육 역시 이를 기본으로 하여 교구나 수도원에서 교육되고 있다. 교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여름철과 겨울철을 통하여 전교인이 참여하는 계층별 수련회를 갖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수련회이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련회의 목적을 정하여 참가하는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참뜻과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과 동시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다.

동계 하계 계층별 수련회는 7일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참여자 사정에 의하여 21일, 49일, 또는 105일 등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수련회의 주요 교육 내용은 煉成, 교리 교사강독, 특별봉사, 체조 등을 통해 종교적 소양과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

그 외에 일반 교인을 위한 교육으로는 각 지방교구에서 일정기간 동안 講道會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강도회 역시 수련과 교리강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청소년교육

청소년교육에 대해 교단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직 미흡하다. 청소년에 관한 교육은 주로 청년회나 교구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 교육은 1926년 8월 13일 천도교청년당 임시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侍日學校의 설립을 모

17) 「천도교경전」, 635면

태로 하고 있다. 당시 시일학교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侍日學校創設. 自來로 우리 道の 眞理를 究明하기 爲하야 宗學院 或은 講習所 等の 諸機關을 設置하고 教化及宣傳에 對內對外로 많은 貢獻을 남기었으나 그러나 이것이 한 部分이요 片時的임을 遺憾으로 思하야 本黨에서 自今으로 全般的이요 또는 永續的으로 우리 道の 眞理를 研究且闡明하여 社會化시킬 教化機關을 두기 爲하야 侍日學校를 創設기로 되었습니다.¹⁸⁾

이러한 목적으로 창설된 시일학교는 일제 말기와 전란으로 한 때 맥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나 오늘날에는 많은 교구와 청년회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시일학교의 교육내용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천도교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인 시일식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적 소양, 종교의식의 참례, 소속감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다. 시일식을 마친 후에는 주문공부, 천덕송 합창, 기초적인 교리문답 및 강연, 특별봉사를 통해 참된 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를 익히고 있다.

이외에 청소년 교육으로는 한울학교의 운영이다. 시일학교는 매주 일요일인 시일날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한울학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교구 또는 성지 등에서 개교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천도교의 신념인 포덕천하 광제창생을 실천하고 있다. 그외에 공동생활 익히기, 생각열기, 표현하기, 자율성 창의성 책임감 익히기 등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¹⁹⁾

그밖에 종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계 하계 계층별 수련회와 사적지 성지순례를 통하여 종교적 소양을 쌓고 있다.

한편 전문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천도교종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천도교종학대학원의 교육 목표는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건설을 목적으로 한 천도교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능력 있는 종교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천적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진리탐구와 교리연구와 체행 그리고 시대적 조류를 연구하여 창조적 정신을 계발하도록 하고 있다.

18) “청년당회보”, 신인간 통권 7호, 1926. 11, 50-51면

19) 공진성, “부산시교구 어린이 시일학교 현황”, 신인간 통권 573호, 1999. 5, 26-27면

VI. 천도교의 사회활동의 전개

천도교는 창도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정치·사회관을 가지고 적지 않은 사회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수운 최제우는 창도 초기부터 제자들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위하여 적극 돕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은 창도 당시부터 매우 끈끈한 공동체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여 교조의 순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또한 해월 최시형은 “가난을 傾蕩한 사람은 이미 불쌍하게 되었으니 집에 있으면서 관망이나 하고 飽食溫處한 자 어찌 가히 마음이 편안히 하리오. 有無를 箱子하여 遊離치 않게 하고 원근이 합심하여 異論이 없게 하라”²⁰⁾하시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협심하여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사회적 기능은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혁명을 비롯하여 갑진개혁운동, 3.1독립운동 등으로 그 맥이 이어졌다.

반봉건 반침략의 가치를 올리며 1894년 기포한 동학혁명은 백산에서 창의를문을 발표하고 전주성을 점령,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으면서 집강소를 설치 12개조 폐정개혁을 실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탐관오리 척결, 횡포한 부호 처단, 불량한 유림의 응징, 노비 문서 소각, 천민에 대한 대우 개선, 과부의 개가 허용, 무명잡세 폐지, 지벌 타파, 외세 구축, 공사채 일소, 토지 평균분배 등이다. 그러나 일본의 계획된 침략으로 공주 우금치에서 패퇴한 동학혁명은 30만의 희생을 내고 결국 좌절되었다.

한편 한일합방 후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정치와 무단정치에 항거하던 천도교는 1919년 3월 1일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 대표들을 규합, 거족적인 3.1운동으로 구국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3.1운동을 준비하면서 기독교에 5천원의 제공과 독립선언서를 보성사에서 인쇄하는 등 모든 경비는 천도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하였으며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의 세 가지 원칙 아래 민족대표 손병희 등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였다. 천도교에서는 의암 손병희 외 김완규·권동진·권병

20) 「천도교백년약사(상)」, 천도교중앙총부, 1981, 182-183면

덕·나용환·나인협·양한묵·이종훈·이종일·임예환·박준승·오세창·최린·홍병기·홍기조 등 15명이 서명하였다. 이외에도 48인으로 박인호·노현용·안상덕 등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된 3.1운동에는 각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는데 1919년 말 총 수감자 1만9천50명 중 천도교인이 1천3백64명이나 되었다.

본장에서는 천도교의 사회활동 중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사업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천도교 복지사업

천도교가 광의의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사업에 착수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75년 전인 일제시대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25년 경 당시의 교단지도자들이 교도의 생활향상과 농촌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조선농민사’를 조직하고 그 사업으로서 지방 교도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농민공생조합, 소비조합, 생산조합, 신용조합 등을 설치하였다. 그 후 교인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자 이를 두려워 한 일제의 탄압으로 강제 해산당하여 오늘날까지 계몽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회복지운동사에서 어느 종교단체보다도 앞서 사회복지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한 사실은 우리 천도교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근래에 와서 천도교에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사업에 뜻을 두고 사업에 착수 한 것은 지금부터 17년 전인 1982년 경인 것으로 생각된다. 1982년 12월에 서울시 도봉구(분구 이전) 관내에 있는 수유1동 새마을유아원과 하계새마을유아원을 천도교 총부와 구청장 간에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83년 2월부터 유아원 사업을 시작하였다.(새마을유아원은 정부 유아교육정책의 변경으로 92년 3월부터 ‘어린이집’으로 개편되었음)그 후 1996년 5월에 구의2동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중이므로 현재로서는 3개의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제도는 사회의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로 발생한 핵가족화, 가정의 해체,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파생되는 자녀의 양육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시책이며 사회복지

지체도의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이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이기는 하나 더 중요한 역할은 보육기능이다. 즉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녀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맡아 교육과 동시에 보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다. 1세에서 6세까지의 맡겨진 아이들에게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동안 점심·간식 등을 제공하고 가정 대신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천도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어린이집은 아래와 같다.

이를 계기로 천도교가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은 하계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계사회복지관은 노원구 하계동에 있었던 새마을 유아원 자리에 區立으로 부지 150평에 지하1층, 지상2층, 총건평 296평의 건물을 건립하여 천도교 유지재단과 노원구청간에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먼저 하계사회복지관의 연혁을 간략히 소개한다.

1991. 9. 30. 재단법인 천도교 유지재단과 5년간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1991. 10. 1. 초대관장에 허승엽이 취임, 업무를 개시.

1992. 3. 6. 한내어린이집을 개원.

1996. 10. 1. 3년간의 위탁운영 재계약 체결.

1998. 9. 21 노숙자 수용시설인 ‘희망의 집’ 개설예산은 세입 중에서 보조금이 56%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전입금은 18%로 운영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다. 세출에서는 인건비가 46%, 사업비 39%이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하계사회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특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다. 하계사회복지관은 노원구 하계동 일대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 세대는 4,119세대에 인구수는 약1만5천명에 이른다. 각 세대마다 각기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이 많은 세대와 주민들을 모두 사업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지역조사와 주민욕구조사 그리고 주민과의 상담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실정에 알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하계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교육 프로그램(기능교실)

성인반 : 컴퓨터교실, 홈패션 양재교실, 미용교실, 영어교실, 보일러교실

학생반 : 컴퓨터교실, 피아노교실, 영어교실, 미술교실, 속셈교실, 종이접기교실(생활보호 대상자는 교육비를 전액 면제. 일반주민은 실비교육비를 받음. 수업금은 복지사업에 쓰여짐.)

◇ 가정복지사업 : 가정문제 종합상담, 취업·부업 안내, 직업·부업 기능훈련, 보건의료 서비스, 부녀자 교양취미교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 노인/장애인 복지사업 : 경로식당(점심 제공), 물리치료실 운영, 수지침 서비스, 노인효도잔치 및 관광, 재가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야유회

◇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 아동 및 청소년 기능교실,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도서 대출 및 독후감 모집, 문화유산 답사교실, 아동캠프 및 어린이 잔치

◇ 지역복지사업 : 한글교실, 사회조사,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후원사업

◇ 재가복지사업 : 밑반찬 지원, 세탁 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무료 진료, 이 미용 서비스, 김장지원 서비스, 결연후원금 서비스, 후원물품 서비스

◇ <희망의 집> 운영 : 노숙자 숙식제공, 자립교육, 취업기능 교육, 취업정보 제공²¹⁾

2. 천도교의 교육사업

1) 천도교의 교화교육 활동

수운 최제우의 ‘天心卽人心, 최시형의 事人如天, 손병희의 人乃天 사상으로 이어지는 천도교 사상은’ 사람은 즉 한울님이라는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만민평등론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천도교에서는 천의에 따라 존재한다고 파악함으로써 존재 그 자체로서 존엄하며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인간

21) 허승엽, “천도교와 사회복지사업”, 신인간 통권 587호, 1999. 7, 22-27면 참조

평등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최시형은 이러한 평등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사람은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귀천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천의에 어긋나는 것이니²²⁾

천도교의 민중교회교육 활동은 손병희에 이르러 크게 확산되었다. 손병희는 1894년 동학혁명운동이 좌절된 직후 미국망명을 결심하고, 1901년 3월 孫秉欽(손병희의 동생)·李容九 등과 원산·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는 일본을 두루 살핀 결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근대교육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이에 손병희에게 귀국하여 중요 교역자들과 근대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道家子弟로 하여금 문명학을 배우게 함이 국가 장래를 위하여 크게 유익하니 그대는 본국에 돌아가 이 뜻으로 道人에게 曉諭하라.²³⁾

한편 일본에 머물던 손병희는 경비문제로 미국행이 여의치 않자, 이해 9월 원산을 통해 다시 귀국하여 10월에 ‘敬通’을 발표하면서 포교와 수도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망명생활을 하였다. 손병희는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국내의 주요 교인의 자제중에서 鄭廣朝·吳尙俊·李光洙 등 24명을 선발하여 奈良·京都 등지의 학교로 보낸 신문화와 신문명을 배워오도록 하였으며, 1903년 3월에도 40명을 추가로 유학보냈다.²⁴⁾ 이는 손병희가 근대민족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대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계문명과 접촉시켜 새로운 문명사

22) 주 2) 참조

23) 「천도교백년약사(상)」, 330면

24) 전계서, 330-332면

조에 호응시킴으로써 앞으로 부강한 독립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 하에서
 ……… 자신이 망명중이며 정치적으로도 한국침략을 눈앞에 둔 두 침략자들의 틈
 바구니에서도 잊지 않고 장차의 계획을 위하여 청년들의 교육에까지도 온 힘을 다
 하였던 것이다.²⁵⁾

천도교의 교육사업은 1905년 12월 1일로 그동안 동학이라 불리우던 것을 천도교로 대고천하하면서부터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그것은 손병희가 민족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우선 민도를 높이고 서구의 신기술을 습득해야만 한다는 확신 아래 우선 민도를 높이고 교육개혁운동을 적극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의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스스로 부강 정책을 추진하여 국력을 쌓아 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는 그가 교육 사업활동에 직접 참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회고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학교 설립과 같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 했으므로 既設 학교에 대하여 보조비를 기여하는 잠정적인 일에 그치는 것이었다. 3월 초순에 ………교장 金重煥에게 지폐 80圓을 기증한 것을 필두로 ………西署 蛤洞小學校에 40圓 ……… 시내외의 사립학교 23개 교에 그 교육 정도와 교원·학생 수의 다과에 따라 차등을 두고 80원에서 20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그 후에도 興化學校와 琵琶洞 소재 私立 光明學校에 각각 30원을 기증하고 4월 초 私立 石村洞小學校에 15원을 보조하였다. ……… 보조금을 기부하게 된 이유는 당시의 사립학교마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생도를 위한 교재 무상공여는 물론 교원의 봉급 지불조차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학교의 재정 상태 여하에 따라 보조금을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보조는 일시 찬조금의 지급에 그치는 데도 있었으나 ……… 매월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학교 폐쇄의 비운에서 건져내기에 힘쓴 것이다.²⁶⁾

25) 「의암손병희선생전기」,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1985, 171면

26) 상계서, 281면

이러한 천도교의 교육사업은 1910년 8월 일본은 국권마저 강탈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여 국권을 보존하려던 노력은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교단으로 하여금 교육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²⁷⁾

2) 천도교의 학교운영

일제는 1910년 5월 조선에 부임한 데라우치 총독은 토지조사령과 회사령으로 조선의 경제적 기반을 파산상태로 몰아넣었다. 더욱이 일제는 1908년 8월 8일 사립학교령과 1911년 9월 23일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민족교육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정책은 천도교가 사학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각 교구에서는 교리강습소를 설치하는 한편 보성학교, 동덕여학교를 인수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 35만원의 거금을 지원하는 등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진흥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학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천도교에서 학교경영을 통해 추진한 구체적인 교육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보성학교

천도교는 1906년 3월 사립보성학교에 80원을 기증하고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동교가 가중되는 운영비의 압박으로 폐교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1910년 12월 21일 학교 경영의 인수계약을 체결, 보성학교가 안고 있던 3만원의 부채를 정리하고 정식으로 학교운영을 맡았다. 그후 일제의 민족사학 탄압에도 불구하고 보성학교는 한국 사학의 명문으로 꾸준히 육성되었다.

그러나 천도교는 3.1운동 이후 재정난의 악화로 인하여 자연히 학교 경영에 타격을 받게되었다. 더욱이 1920년 3월 1일 개정된 사립학교 규칙 제4조에 “사립의 전문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의 설립자는 그 학교를 설립유지하기에 족한 재산을 가진 재단법인이라야 한다”라는 조항때문에 14년간 3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성학교의 운영권은 아무런 조건없이 불교총무

27) 정영희, 「개화기 종교계의 교육운동 연구」, 혜안, 1999, 210-214면 참조

원에 인계하였다.²⁸⁾

(2) 동덕여학교

동덕여학교는 1908년 조동식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학교의 어려움을 안 천도교는 1909년 11월 특별기부금 100원을 회사하고 월간경상비 18원 중 10원을 매월 부담하다가 1910년 12월부터는 매월 27원씩으로 증액 보조하기로 하는 한편 관훈동의 천도교 소유 대지 209평과 32칸 기와집까지 기부하여 셋방살이 신세를 면하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천도교는 이 학교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1914년 12월 27일 학교 운영권을 천도교 박인호의 명의로 변경하고 정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그리하여 동덕여학교는 1915년 9월 드디어 168평의 2층 교사를 신축하였고 여성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동덕여학교 역시 3.1운동 이후 일제의 천도교 탄압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천도교는 1923년 12월 25일 설립자인 조동식에게 다시 경영권을 넘겨주었다.²⁹⁾

(3) 中一學校

당시 기독교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학교를 설립 경영하였다. 그러나 천도교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보성학교와 동덕여학교를 인수 경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육은 민족성쇠와 종교의 교세확장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한 천도교는 일부 지역에서 학교를 설립 운영하였다. 이를 계기로 북방의 강계에서는 인물양성을 위하여 중일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중일학교의 설립은 3.1만세운동 당시 총독부에 압수되었던 6천여 원의 기금과 당시 천도교 강계교구의 중심 인물들의 후원으로 1921년 4월에 설립되었다. 처음에 중일학교는 중일학원으로 설립되었으나 학생과 교사 및 유지 인사들이 중일학원을 중등학교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중일학교로 인가되었다. 이어 강계교구는 중일학교를 더 확장하여 보통과와 고등학과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다.³⁰⁾

28) 오익제, 전계서, 226-227면

29) 「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하)」, 동학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1994, 84-85면

(4) 東興學校

동흥학교는 북간도 용정에 설립된 중등교육기관으로 근대적 교육에 맞는 과학적 문명의 선도자 양성과 천도교를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취지 아래 동흥학교는 발전을 거듭하여 한 때는 학생수가 무려 6백여 명에 달하였고 교사도 16명에 이르는 발전을 보았다. 학생들은 주로 시베리아, 남만주, 조선 국내에서 입학하는 등 북간도 지역의 동포 자제를 교육시켜 장차 국권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흥중학교도 재정적 어려움을 술하게 겪었지만 광명중학교, 대성중학교와 함께 존속하다가 1946년 용정중학교로 개편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³¹⁾

(5) 長明學校

장명학교는 천도교 장백교구에서 설립한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이다. 당시 장백현에는 아동들이 보통학교를 마치면 더 이상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없었다. 물론 생활고가 빈곤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 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급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장백교구의 천도교인은 조선인 자녀의 초등 및 중학정도의 교육실시를 목적으로 장명학교를 설립하였다.³²⁾

이상의 학교 외에도 천도교에서는 용산에 養德女學校) 마포에 三湖普通小學校, 청파에 있는 汶昌學校, 청주에 있는 宗學學校, 안동에 鳳陽義塾, 선천에 普明學校, 전주의 昌東學校, 대구에 嶠南學校와 明信女學教 등이 있었고 그 밖에도 수십개의 학교를 직접 경영 및 보조를 하였다.³³⁾ 천도교는 이와같이 정규학교 이외에 1908년 6월 10일 종령 10호로 강습소 규정을 공포, 전국 8백여 곳에 교리강습소를 설치하였고 1910년에는 사범교리강습소를 서울에 설립하였다. 이러한 천도교의 각종 교육사업은 계몽운동을 통한 문맹퇴치와 민중교육, 민족교육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30) 이원형, “우리 교우의 신자각하에 설립된 중일학교를 소개함”, 천도교회월보 통권 149호, 1923. 2, 44-45면

31) 최명호, “북간도— 우리 교회 발전책의 전구인 사립동흥학교를 소개하며”, 천도교회월보 통권 147호, 1922. 12, 76-81면

32) 조병수, “장명학원을 위하여”, 천도교회월보 통권 159호, 1923. 12, 55-57면

33) 오익제, 전계서, 228면

VII. 사회적 기능을 위한 과제

천도교의 사회관의 이론적 근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내천, 후천개벽, 동귀일체 사상이다. 그리고 천도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건설이다. 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도교가 지니는 사회적 기능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는 종교적 기능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적 갈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을 소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천도교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새 천년인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는 지금 다가올 새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기대감은 다가올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대감일 것이다. 천도교에서 말하는 5만년 운수의 새로운 개벽의 시발점으로서 또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상사회 즉 지상천국의 도래를 기원하는 기대감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천도교 동덕 여러분은 너나 할 것 없이 복지사업에 나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 힘을 합쳐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먼저 교인 개개인이 종교인의 참모습을 깨닫고 他를 위하는 것이 我를 위하는 것임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수운 최제우는 “남의 적은 허물을 나의 마음에 논하지 말고 나의 작은 지혜라도 사람에게 베풀라”³⁴⁾고 하였다. 이러한 타인에게 나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종교가 가지는 사회적 기능의 기초가 될 것이다.

둘째 교단적 차원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전개이다. 천도교는 해방 이후 뚜렷한 사회적 기능 또는 역할에 나름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창도 이후 동학혁명을 비롯하여 3.1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 역사를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여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4) 「천도교경전」, 84면

셋째 천도교의 이념에 맞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교인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별히 천도교는 민족종교로서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루어내는 일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천도교의 사회적 운동의 주된 힘은 그 3명의 특출한 인물들이 제공한 통솔력이었다.大神師 崔濟愚는 그 운동에 도의 바탕과 개혁정신을 제공했으며 神師 崔時亨은 스승의 이상을 실제에 적용했고 비교적 성공적인 무저항 개혁수법의 기본되는 조직체를 설립했던 것이다. 그리고 聖師 손병희는 계승하여 천도교를 일본 지배에 반대하는 비폭력반란의 주동세력이 되게 하는 그런 길로 그의 선행이 만들어 놓았던 조직과 도의 사업을 이끌어 갔던 것이다.

동학기간에 천도교가 발전시켰으며 그리고 일본지배 기간중에 완성된 효과적인 조직체는 중앙과 지방 말단조직 사이의 연락을 민속하고 안전하게하여 1919년의 비폭력반란을 실질적으로 성공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천도교의 재원은 성미로 축적되었으며 전체 봉기를 지원했다.

성사 손병희의 정치적 재능과 행정적 능력은 현대 한국 민족주의의 위대한 지도자중의 일인이 되게 했다. 그는 한국독립운동을 낳게 한 1919년 3월 1일 봉기의 선두적 지도자였다.

천도교는 또한 그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객관적인 교훈을 제공했다. 민족주의정치·사회운동에 대한 강력하고 헌신적인 통솔과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은 정강이 얼마나 증대하냐 하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결핍되었을 때 천도교가 경험한 재난의 결과로서 뚜렷이 예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東學이 1세기를 걸어온 민족자주의 길과 事人如天의 민주사회건설이 국민 스스로의 단결과 끊임없는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천도교의 사회·정치적 기능을 완수하는 날이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적 변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천도교의 사회적 역할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한다.